

2008년 뜬 ★

2008년 진 ★

한 해가 저물어간다. 다사다난했던 무자비 한 해에도 수많은 인물이 이목을 끌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형 비리사건에 연루돼 오명을 쓴 사람도 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인물도 있다. 올 한 해 화제의 인물들을 정리해 본다.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날다

◇ 국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소연 박사는 한국의 첫 우주인으로서 우주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우리나라 우주 탐사 및 개발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는 지난 4월 8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우주 기지에서 러시아 소유스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향한 뒤 8일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머물렀다. 이 박사는 세계 475번째 우주인, 49번째 여성 우주인으로 자리매김했다.

▲'골든보이' 박태환 =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에서 한국 수영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걸며 생애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박태환은 지난 8월 베이징 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에서 우승하고 자유형 200m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하면서 아시아 최고의 수영 스타로 떠올랐다.

▲'피겨요정' 김연아 = 한 방송사의 설문 조사 결과 올해 한국 사회를 통틀어 가장 성공한 인물로 꼽힐 만큼 큰 인기. 지난 3월 2008 세계피겨선수권대회 2년 연속 동메달을 시작으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그랑프리 시리즈 5개 대회 연속 우승과 2008-2009 ISU 그랑프리 파이널 은메달까지 세계 여자 피겨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골프천재' 신지애 =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와 여제 로레나 오초아를 제치고 미국의 골프전문 사이트 '골프닷컴'이 올해 가장 많은 것을 성취한 선수로 평가. 신지애는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정상에 오르는 등 올 시즌 LPGA 투어 정규대회에 10차례 출전해 세 차례 우승을 포함해 모두 여성 차려나 톱10에 들었다.

▲오쿠이 엔위저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 광주비엔날레 역사상 첫 외국인감독으로 '2008광주비엔날레'를 특정한 주제가 없는 비엔날레로 기획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나이지리아 출신인 오쿠이 감독은 광주비엔날레에서 1년

◇ 국제

간 열린 전 세계의 의미있는 전시를 한자리에 모아 현대미술의 흐름을 조망하고 광주 비엔날레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도약하는데 기여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 =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될 예정이다. 금융위기 극복과 약화된 미국의 국제적 위상 회복이라는 과제를 물려받은 오바마가 그의 선거운동 구호였던 '희망과 변화'를 어떻게 보여 줄 지 미국인은 물론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다.

▲장 마리 퀴스타브 르 클레지오 =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프랑스 문학계에서 현존 최고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여행을 통해 얻은, 다른 세상에 대한 동경을 작품 세계에 주로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작품에 나타나는 삶의 다른 방식에 대한 매혹 때문에 '형이상학적 픽션'이란 비판을 받기도 한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학 교수 = 현실 참여형 경제학자로 알려졌다가 아시아 금융위기 및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경고해 유명해졌고 '무역이론과 경제지리학의 통합'이라는 연구 업적을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의 이유가 됐다. 최근에는 경제학자라기보다는 경제전문 기고가로 더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미셸 리 미국 워싱턴 D.C. 교육감 = 지난해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최초로 워싱턴 D.C. 교육감에 취임한 뒤 워싱턴 지역 교육계에 민연한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고 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이런 노력은 미국 언론들의 조명을 받은 것은 물론 오바마 당선자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 =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부주석으로 선출된 뒤 북한을 방문하고 올림픽 개최를 총괄 지휘했으며 중국의 다른 국가지도자들처럼 금융위기 대응 같은 각종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다. 5년 뒤에는 후진타오 주석의 뒤를 잇게 된다.

◇ 국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으로 '봉하대군'이라는 별칭이 있었던 노씨는 지난 2005년 세종증권을 농협중앙회로 매각하는데 권의를 바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종개팔달 대표 홍기욱 씨에게서 30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2월 구속기소됐다.

▲소설가 박경리 = 대하소설 '토지'를 쓴 한국 문단의 거목으로 5월5일 82세로 타계했다. 경남 통영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5년 8월 '현대문학'에 단편 '계산'이 소설가 김동리에 의해 추천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해 '김약국의 딸들', '과시', '시장과 전장' 등을 발표했다.

▲소설가 이청준 = '당신들의 천국'의 작가로 폐암 투병 끝에 7월31일 69세로 타계했다. 장흥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5년 단편 '퇴원'이 '사상계' 신인문학상에 당선돼 등단하며 한국 현대소설의 본격적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 소설문학의 한 장을 열었다. 이후 40여 년간 '당신들의 천국', '이여도', '소문의 벽', '잔인한 도시', '매잡이', '축제' 등 다채로운 세계를 탐구한 작품으로 문단에 큰 자취를 남겼다.

▲앨런트 최진실 = 20년간 대중스타의 자리를 지키다가 10월2일 마흔의 나이로 자살했다. 그의 사후 자신의 성(姓)을 따랐던 두 아이의 친권과 재산관리권을 놓고 논란이 일었고, 그가 평소 앓았다는 우울증과 인터넷 상의 악성 댓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 = 삼성그룹이 각종 의혹사건을 둘러싼 특검수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략기획실 해체 등 채신안을 발표하면서 이건희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남으로써 '삼성=이건희'라는 등식이 40여 년 만에 깨졌다. 그는 지난 7월 1일 영욕의 세월을 뒤로하고 삼성그룹에서 공식적으로 퇴사했다.

◇ 국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 임기 말 월스트리트발 금융 위기로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서 책임론에 휩싸였다. 지난달 치러진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가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에게 참패하면서 집권당 승계에도 실패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러시아 문호 = 한평생 불굴의 저항 정신을 문학 작품에 담아내며 러시아의 '살아있는 양심'으로 불리다가 지난 8월 심장마비로 타계했다. 향년 89세. 1968년작 '암병동'은 러시아 문학의 정점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1970년 노벨문학상을 받았으나 1973년 옛 소련의 인권 탄압을 기록해낸 '수용소 군도' 1부를 내놓으면서 반역죄로 강제 추방 당했다.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 미국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49년간 쿠바를 사회주의 국가로 지켜왔으나 건강 악화로 지난 2월 사임했다. 현재 81세인 그는 1959년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 미국의 지원을 받던 기존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았으며, 미국의 경제 제재에 시달리면서도 옛 소련의 원조를 받으며 철권 통치를 이어왔다.

▲이브 생 로랑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 = 프랑스 파리를 패션의 중심지로 끌어올린 최고의 디자이너로 군림해오다 지난 6월 질병으로 숨을 거뒀다. 향년 71세. 여성 정장 바지와 가죽 재킷 처럼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아이템을 여성복으로 옮겨와 '패션의 혁명'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에드문드 힐러리 에베레스트 최초 등반가 = 1953년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뉴질랜드의 등반가이자 탐험가. 지난 1월 심장마비를 일으켜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33살이던 당시 네팔 셰르파족(族)인 텐징 노르게이와 함께 후일 '힐러리 스타프'라 이름 붙여진 12m 높이의 수직빙벽을 돌파,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



'국민 여배우' 최진실 지다

(주) 리치엔

리치엔 RITCHEN

리치엔 주방기구. 광주직영전시장 OPEN

1577-1578-1579

2009 영암호해맞이축제

2009. 1. 1(목) 07:00~

영암군 호남현대 이피플장

2009년 1월 1일(목) 07:00~

영암군 호남현대 이피플장